



扶安林氏金浦宗報

4호
2018년 12월 20일

◎ 발행일 : 2018년 12월 20일 ◎ 발행인 : 임종호 010-4734-8002 ◎ 편집인 : 임종상 010-5343-3441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29-1

이해하고 관용하며 관심을 갖는 형제애를 만듭시다.



친애하는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중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중회장을 7년째 보내며 금년 종회에서는 족보를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족보를 편찬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자족보는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 볼수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물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책으로 만든 족보도 같이 출간하여 배포하여 드릴것입니다.

기존의 족보는 한문위주로 쓰여져 젊은세대에서 읽기 어렵고 먼 친척과의 촌수나 조상을 찾기가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자주 찾아보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족보는 편리성은 물론이고 한번 구축하면 수시로 출생, 결혼, 사망등을 기록할 수 있기에 20~30년 주기로 발간하던 불편과 비용을 절감할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항들을 공백없이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우리 김포종중회의 사업을 항상 공유할 수 있고 소통 할수있으며 많은 종인들이 참여 할수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편찬 할수있도록 모든 종인들께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회장으로 마지막 임기가 되는 해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종중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는지, 올바른 일을 하였는지, 잘못하고 서운하게 한 일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선명하게 떠오른것이 종친들간의 친목과 형제애를 깊게 갖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왕인 조조는 칼(무)로 세운 왕조이기에 후대왕은 문인으로 세워 왕조의 기품을 깊게하려 하였습니다. 장자 조비는 무인 이였고 삼남 조식은 문장이 뛰어나 후계를 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죽음 직전야 장자인 조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후계 다툼을 하던 조식은 불복하여 아버지 조조의 장례식에도 조문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조비에게 잡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비는 동생 조식을 잡아와서 “네가 시를 잘 짓는다고 소문이 도성 안팎에 파다하니 일곱걸음 걷는 동안에 시를 지어 보거라. 너와 나

는 형제이니 형제의 정을 넣어 시를 짓되 절대로 형제란 글은 한 글자도 넣어서는 안 된다. 합당한 시를 짓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소문이니 아버님과 세상 사람들을 능멸한 죄를 추가한다. 옆의 장수는 일곱 걸음이 끝날 때 바로 목을 치거라”

조식이 부들부들 떨며 걸음을 옮겨가며 시를 지었습니다.

칠보시 七步詩

[자두연두기 煮豆燃豆其] 콩대를 태워 콩을 삶는다

[두재부중읍 豆在釜中泣] 콩이 솥안에서 운다.

[본시동근생 本是同根生] 본래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 났거늘

[상전하태급 相煎何太急] 어찌 이리도 급히 조리시는가.

어떻게든 구실을 잡아서 죽이려던 형 조비도 끝내 눈물을 쏟으며 안타까운 형제의 정에 동생을 끌어안고 살려 보냈다는 이야기는 가슴 뭉클한 형제애를 느끼게 합니다.

오해는 이해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관용은 겸손함속에서 넓은 포용을 만드는 것이고 관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종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관심을 갖고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친목의 발전을 목표로 2019년을 종친과 함께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 종인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다시금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중회장 임 종 호



2018 밀직공파 김포종중 중요 사업내역



임도연
김포종중총무이사

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중총무 임도연 인사드립니다.

금년은 어느 때 보다 바쁜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사회, 총회, 전자족보편찬위원회, 종친관광, 서하공시제, 학사공시제, 소종중시제, 부안 시제, 전국임씨 종친회 참석, 부안임씨 중앙종친회 참석, 전자족보 홍보차 소종중 방문, 종중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 추모공원 과 납골당 관리등 수많은 날들을 종중관련 업무를 보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농사일 하며 신 김포농협 이사로 활동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말이 된 것 같습니다.

〈2018 종중 중요 사업내역〉

- 1월 12일 감사 2017결산보고, 이사회2018사업계획
- 1월 18일 총회 2017결산감사보고, 2018사업계획서승인
- 3월 6일 이사회-종친회관광견. 전자족보 설명회
- 3월 17일 부안 시제참석
- 3월 27일 종친관광 강원도
- 4월 13일 이사회 전자족보 주관업체계약
- 4월 25일 쇠암리소종중방문
- 5월 16일 종중건물 전기.청정보수 공사
- 7월 13일 부안임씨 중앙종친회 참석(부안)
- 8월 10일 이사회(쇠암리 소종중에서 개최)
- 9월 18일 전자족보 편찬준비위원회 (전자족보진행점검)
- 11월 10일 조산재 포기 시제참석(전자족보홍보)
- 11월 11일 동을산리병골 시제참석(전자족보홍보), 함박곶이시제참석(전자족보홍보)

- 11월 16일 개리 시제참석(전자족보홍보) 쇠암리시제(전자족보홍보)
- 11월 17일 학사공시제
- 11월 22일 서하공시제
- 2019년 1월초 2018결산감사와 2019예산심의
- 2019년 1월말 총회예정



▲ 쇠암리 소종중 방문하여 이사회개최

위와 같이 종중 업무사항을 알려 드리며 몇가지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1. 저희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중회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신 종인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과 안전한 관리로 운영되는 추모공원과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종인여러분께서는 이용 부탁드립니다.

2. 전자족보편찬에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www.부안임씨밀직공파.com 입니다.

또한 족보에 올릴 새로운 사항(출생, 결혼, 사망등) 기존 족보 이후에 발생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접수하시거나 소종중임원 이나 종중총무인 저에게 직접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족보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도 알기 쉽고 편리하며 접근하기 좋은 족보로 시대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2019년 3월 31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여 새로운 족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종중총무인 저 임도연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10-9553-9369)

부안임씨 김포종중 임원명단

직책	이름	전화번호	직책	이름	전화번호	직책	이름	전화번호
고문	임중기	011-9892-0405	회장	임중호	010-4734-8002	이사	임중상	010-5343-3441
고문	임중학	010-8387-1477	부회장	임중근	010-5328-9205	이사	임중훈	010-3792-2132
고문	임중철	010-2588-0563	총무이사	임도연	010-9553-9369	이사	임중선	010-2287-0945
중손(부회장)	임병일	010-5470-0163	이사	임중문	010-5270-6839	이사	임찬기	010-9023-5693
감사	임문기	010-8519-1773	이사	임중수	010-2388-8840	이사	임중철	010-5340-4954
감사	임중철	010-2327-2974	이사	임한기	010-6237-2978	이사	임중광	010-7600-8082
			이사	임충실	010-3396-3394	이사	임병호	010-2739-7750
			이사	임용혁	010-3718-6549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앞장서야 종중이 발전합니다

—부안임씨청년·여성회 적극적인 활동 타의 귀감—



“조상이 같은 한 집안의 구성원은 꽃이 한 나무에서 피어나서 비록 일천가지 일만있이 되더라도 모든 본 뿌리의 굳고 깊음을 말미암은 것과 같습니다.”

부안임씨 밀직공파 청년회 임종광회장의 일화이다. 2012년도에 창립된 청년회는 임종훈(林鍾勳)초대회장에 이어 2대 청년회장을 맡은 지 4년째를 맞아 종중의 일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임회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 뿌리에서 나온 여러 갈래의 나무줄기는 모두가 다 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조상의 직계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뀐다 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부안임씨 밀직공파는 김포종회(회장, 林鍾瑚)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아래 청년회(회장, 林鍾光)와 여성회(회장, 張英淑)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길지 않은 모임임에도 조상의 유구한 예의엄치(禮儀廉恥)정신을 바탕으로 가문의 자긍심을 후세에까지 승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배양키 위해 2018년에 회원모두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모임을 가졌다.



〈전회원 단합 등산대회〉

- 일시 : 2018년 5월 26일
- 장소 : 문수산(청룡회관)
- 참석 : 회원 100여명
- 주요내용 : 회원 간 친목 도모
- ※ 종중 총무(林度淵)에게 감사패 수여

〈회원 친목 송신년회〉

- 일시 : 매년 연말, 연초 1회
- 장소 : 훈장골 갈비집
- 참석 : 회원 100여명



〈종중 시제 참여 지원〉

- 일시 : 매년 10월
- 장소 : 개곡리(독골), 검단 마전동 선영
- 지원 : 행사 진행 및 참가 내빈 차봉사 등

“같은 조상의 자손들이 늙도록 얼굴도 모르면 이것은 일가 간에 돈독하고 화목한 의리일수는 없습니다. 청년회에서는 앞으로 위로는 조상을 위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일가 간에 화목을 더욱 다지도록 해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종중의 백년대계를 위한 꽃다운 모임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라며 임종광 청년회장은 한해를 결산하며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청년회가 조상의 음덕을 승모하고 회원 간에 단합을 이루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전자족보 편찬사업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계획이며, 특히 구축될 홈페이지는 대다수가 무작위로 들여다보는 종회의 얼굴과도 같은 효율적 기능을 하므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목표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전자족보가 홈페이지에서 종회 가족 누구나 편히 볼 수 있도록 이용의 편리성과 자료의 정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명년도에는 ▲회원 단합의 장 마련을 위한 5월중 등산대회와 ▲부안임씨 뿌리심기사업을 위한 청년회 교육사업과 ▲문장가 서하공 문학토론사업등도 계획성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先祖 時祭 案内

忠節公	林八及	(음)	3월 3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文憲公	季美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西河公	椿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敬世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恭惠公	淑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判事公	澤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密直公	大光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典書公	蘭秀	(음)	9월 9일	충남 연기군 동면 불파미
學士公	繼禎	(음)	10월1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독골

〈林鍾學 전자족보 발간 추진 위원장 인터뷰〉

뿌리없는 백성 없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임 중 학(29세)

부안임씨 전자족보 편찬 위원장

김포에서 마송 조강거리를 가는 길은 고향가는 길목이고, 조상이 잠들어 계신 월곶 개곡리(독골) 선산을 가는 길이다. 금번, 후세에까지 널리 조상의 얼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부안임씨 전자족보를 편찬함에 있어 이 일을 총괄 지휘하고 계신 임중학 편찬 위원장님을 뵈러 가는 길은 고향가는 길목 5일장이 서는 통진 조강거리길이다. 27世孫용화(容華)조부님과 28世孫을기(乙基)아버님을 위로해서 29世孫으로 고향 선산을 지키고 있는 임중학(林鍾學, 83세)전자족보편찬 위원장님을 만나 보았다.

“고향에서 태어나 일찍이 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6.25가 터지는 바람에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네”, “53년도 전쟁이 끝나고 서점에서 강의집을 구입해 학원도 다니고 해서 검정고시로 중학을 졸업하고 김포농고 4,6회로 졸업을 했어”, 그리고 “개곡리(마라니)에 서당이 있어 4년간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배웠어. 월곶면장을 지낸 최복용씨의 아들 세용씨와 조산재 종돈 아버지 용빈어르신으로부터 한문학을 배웠지” 타고난 농부의 아들이라 농고 졸업하고 개곡리에서 농사를 지어 5남매(딸4, 아들1)를 키웠고, 그 30世孫장남 동연(東淵)이가 청년회 총무로 문중 일에 참여하고 있다.

농사를 지면서 8년간 리장도 보고 77년도에는 24년 동안 마송에서 건재상을 해 지금의 3층 건물을 지었다. 문중 일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군대를 수도육군병원에서 의료품보급소에서 약제사로 근무하고 제대하니 대한중외 제약 임용식(林容植)어르신과 한미약품 임성기회장님의 부친이신 용차님과 병굴 용성남께서 차를 보내 서울로 올라오라해 종중의 일을 가르쳐 주곤 했단다. 조상님들에게 훗날 면목이 서고 그 정신을 기리려면 종회일을 알아야 한다며 종회에 관한 일들을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셨다. 그 때 홀기, 축문 쓰는법을 배웠고 홀기와 축문은 시제때 도맡아 읽게 하셨다. 한문으로 된 족보편찬에도 많이 관여했고 잘 정리된 축문은 고창, 연기, 부안등에서 제사지내러 오신 아랫넉 일가들이 복사해 가곤 했다. 지금도 매년 독골, 검단 시제때에는 전날 깨끗이 목욕제개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바른자세한 후에 정성스럽게 축문을 쓰고 있으며 이때 선친은 물론 조상님들 한분한분 그려보며 조상님의 은덕과 감사함을 흰색 습자지에 한자한자 정성을 다해 옮겨 쓰고 있다.

부안임씨 밀직공파 전자 족보 편찬에 참여하시는 마음가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족보는 시조로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역사가 담겨 있는 나와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하고 보물처럼 간직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족보는 같은 시조 아래 다른 계파와 본관을 모두 수록한 대동보와 본관 단위의 족보, 한 종파만을 수록한 파보로 나누어 부르며, 금번 부안임씨 밀직공파 파보를 기존의 인쇄된 책이 아닌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전자족보로 새로이 단장하여 편찬코자 함은 시대정신에 맞는 보람된 일입지요.

족보는 역사와 편찬하는 과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족보는 그 문중의 얼굴이며 뿌리라 생각합니다. 족보는 세(世)에 따라 이름을 넣는 돌림자(行烈)를 표로 작성하고 출생과 부인의 관향, 벼슬 및 공적을 기록하고 사망일과 묘지의 위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일부 귀족 집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신분과 가문의 상징으로 보편화 되었습니다. 서하(西河)문학에 나오는 ‘중추회음서를 볼 때 우리 임씨는 고려 초기인 1170년대에도 족보가 있었던 것

로 나와있습니다. 족보는 20~30년의 주기로 새로운 출생자와 사망자 그리고 결혼 후 부인의 관향과 딸들이 출가할 때 배우자의 관향을 기록합니다. 돌림자(行烈)는 대개 우주의 질서와 틀인 음양오행의 이론에 따라 금·수·목·화·토의 상생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족보를 새로 보정하려면 교통과 통신이 어려워 수집에만도 몇 년이 걸렸고 수집과정에서 부정확한 기록으로 교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 다. 인쇄와 배포 역시도 한가구에 1권으로 제한 공급하다 보니 차남들은 어려서부터 족보를 접하기가 어려웠 습니다. 유교적 관행인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에 젖은 족보체계는 아직도 관학을 존중하고 사학을 천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한문으로 기록되다 보니 찾아 보기 어려웠 습니다.

扶安林氏密直公派宗會
부안임씨밀직공파종회

종회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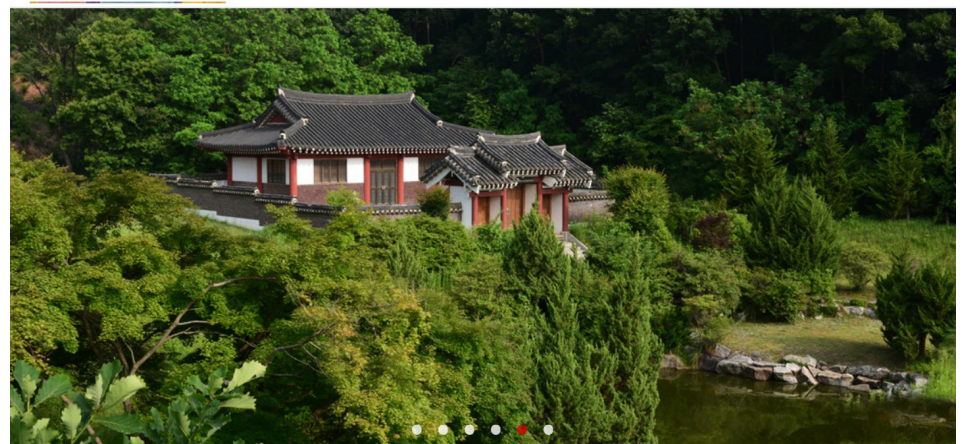
뿌리탐구

인터넷족보

종회자료실

전통자료실

열린마당



▲ 부안임씨밀직공파종회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중요인 말씀입니다.전자족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핵가족화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는 봉건사상의 유물로 도외시 되는 경향이 있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백성이 없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보듯이 족보는 피의 역사이고 혈연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자족보는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한 편리성과 추후 개편 및 보정에도 매우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입력해 놓으면 언제고 추가 개편과 배포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찾아 볼수 있기에 우리대의 젊은 세대들이 관심있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자족보를 편찬하는 종원들의 자세는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새로운 전자족보를 간행하는 일은 일부 추진위원들 만의 힘으로 할수 없었습니다. 종인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보완과 수정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록된 인명과 내용들을 가까운 임씨 일가들에게 보내주고 보도록 하여 전국의 어느 종씨 보다 더욱 윤택하고 보기 좋은 그래서 부안임씨 종회의 성가(聲價)와 자궁(自矜)을 심히 고취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번 편찬하는 전자 족보는 누대에 걸쳐 자랑스런 부안임씨로서 깨끗하고 옹계 틀을 만들어 우리후손들이 조상님들에 대해 해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며, 미래 자손들에게는 큰 자긍심이 될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은요?

그동안 우리 부안임씨 전자족보 편찬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참여하고 성원을 다해 주신 임중호 종회 회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그리고 편집·교정·작업에 함께 고생하고 계신 편집 위원님들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임씨 종중의 얼과 근본은 여러 가지 德이 근본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정학적인 곳에서 우연히 엿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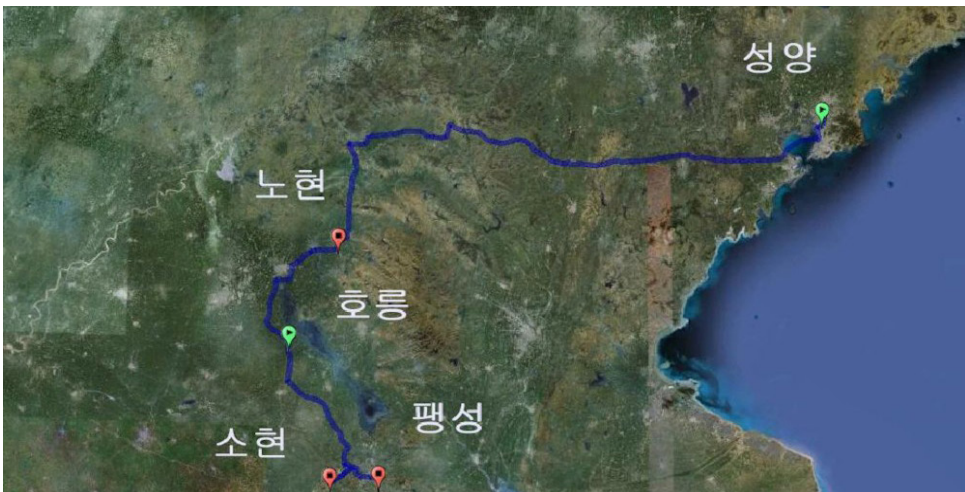


임 병 호

김포 통진읍 서암리 출신
세무공무원으로
38년간 봉직후 명예퇴직(부이사관)
前 國세청국세지원담당관실 사무관
1990. 3. 경제부총리표창
2003.12. 옥조근정훈장(노무현)
2015.12. 홍조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
現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동두천, 부평, 이태원등 미군이 이곳으로 이전한 장소이고 그곳으로 SRT가 지나가는 역인 지제(평성)역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상전벽해를 이루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역시 최근에 이루어진 큰 변화입니다.



그 때만 해도 평택군 평성면이 우리 임씨 종중 선조의 발상지인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서 글로서 정리 하다 보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마음을 가다듬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당시 국세청 조직도상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세무서 중에 최 남단 세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기관이고 내년(2019년 4월)에는 인천 서구에 가장 인천지방국세청으로 재편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택세무서는 제가 잊지 못할 직장 초임지이고 그곳에서 20대의 가장 많은 감성이 민감 할때 그러한 청소년기를 평성 부근에서 멋진 날을 보낸 것으로 기억된다 이 또한 나의 총각 시절을 그곳에서 약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세청 서기관 승진 후 본부 과장으로 발탁되어 국세청 근무시절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국세청 담당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중에 금융분석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국제회의 장소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 되었는데 그중 대만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참석한 감사의 이름이 임씨 종중의 이름을 가진 사람과 명함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중에 대만에서 임씨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유층에 속한다는 정보를 생생하게 말로만 전해 듣고 머릿속에 잠재해 있었지만, 최근 2018년 10월에 대만을 방문하였을 때 현장감 있게 그 사실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재 확인하였습니다.

즉, 대만시내 한복판에 한의사 및 변호사 등 임씨 종중 간판이 눈에 띄게 많고 상당수의 대만 성씨가 임씨 종중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2014년 6월에는 서대전세무서장(대전시 서구, 대덕구, 유성구)의 초임지도 임씨 종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충청도 도청소재지, 연기군 공주시, 세종시)을 초대 세무서장을 역임했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관내 임난수장군 생전의 주무대였던 제단과 사당적인 독립정이 금강 강변

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수도인 세종시내 독립제를 세종시장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에 부안임씨 종중의 일원으로 기관장자격으로 초대받았으나 세월호 1주기와 교묘하게 겹쳐 행사가 생략된적이 있습니다.

당초 연기군에 속해있는 세종시 역시 세종대왕께서 부안임씨 임난수장군 선조에게 하사하신 미래지향적인 좋은 장소인 행정수도를 예측하시고 하사하신 것으로 믿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임씨종중은 덕을 많이 쌓는 종중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좋은 기운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욕 안 먹고 사는 기본 인성과 심성을 간직하고 태어난 임씨 종중을 두루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직 최종 임지도 서울에서 마감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여 저에게 서인천세무서 관할 검단 서하공 묘소 소재지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명예로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현산자락 양지바른 남향에 서하공을 모신 종중 묘소가 있고 거기서 2km 남짓한 장소에 가현택스라는 세무그룹 간판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곳(완정4거리 완정역 2번출구, 원당대로 676번지)에 사무소를 2015년 7월 15일에 개소식을 거행 하였습니다.

제가 가는 임지마다 그에 걸 맞는 임씨 종중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회상되는 부분이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부안임씨 종중의 기본 인격이 밑바탕이 되어온 기본 덕을 이어받으신 저의 선친 임경상(이한갑) 부모님의 다섯가지(하나, 6.25당시 피난 시절 동료를 끝까지 병수발하여 1년간 간호 후 동반 귀향하는 봉사로 생명을 살렸고, 둘째, 방물장수를 비롯한 동네 거주가 일시적으로 부정확하신 분, 즉, 교감선생님, 군인, 친지들의 잠자리를 위해 사랑방을 그들의 居所로 가까이 내어주셨고, 셋째,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우물에 막걸리 통과 오이통김치등 술안주를 우물에 줄로 매달아 동네 분들이 언제든지 논밭에 나들이 하실 때 년중 시원한 음주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앞마당 우물을 개방하시는 후덕한 분. 넷째, 마송 장날 동네 분들의 술 값은 주로 아버님앞으로 외상을 허락하신 분. 다섯째, 경찰서 등 정부기관과 병원 한번 이용 못하시고 공공시설을 다른 분에게 양보하시어 정부의 예산 등을 축내지 아니하신 분 등등) 덕을 쌓아온 기운을 받아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현재 제가 머무는 곳은 가현산 끝자락인 완정(井)이 있는 곳으로 물이 한곳으로 모이는 우물이라는 전래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

상호도 우연찮게 가현(可賢)택스로 歌絃山의 가현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한글의 가현은 같은 표현으로 읽히고 있는 것 또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평택시 평성과 세종시(연기군) 등의 기운을 받은 임씨종중 땅의 지력은 선조의 덕에 의해 많은 후손의 德本の 보기로 자랑거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현산에 남쪽 고즈넉한 남향받이 자락에 서하공의 묘소 등 있는 곳도 분명히 하늘이 내린 德을 안고 있는 장소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미뤄 짐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자는 임씨종중인 서하공의 정기를 받아 무탈하게 사업의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정신은 항상 정도를 걸으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듯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넓고 큰 대륙과 5대양을 향해 하듯 열정적으로 출항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항상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짐을 하면서 일과를 꾸려나가면 아무리 큰 난관도 무리 없이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종중인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세무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역차별 받지 않게 조세문야의 영원한 파수군이 되겠습니다.



▲ 평택시 평성을 소재 우리나라 임씨 시조 휘 팔급 세거지

〈先組의 일을 찾아서〉

잠시도 쉬지 않고 조잘대는 피꼬리소리

- 西河 林椿 조부님의 시 세계 -



임종광 (林鍾光)

부안임씨 밀직공파29손
前 김포시청 자치행정국장
現 김포우리병원 기획실장
부안임씨 김포청년회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의 모체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은 15세기 중반인 조선왕조 초기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우리의 문자생활은 전적으로 한자, 한문에 의존할 도리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거의 모두가 문자생활을 한문으로 영위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가 한문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서하조부님의 시집도 읽는 내내 한문의 뜻을 이해하는데 많은 품과 노력을 요하게 했습니다. 흔히 시(詩)는 문학의 꽃

이라 일컫습니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공자(孔子)의 시집 시경(時經)이 유학의 주요 경전이 되었듯이 우리나라도 고려때 이전부터 한시가 통용되어왔고 오늘날 우리가 선조들의 시와 작품을 만나는 일은 고양된 삶의 향기와 문학적 자양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중기 이인으로, 오세재등과 함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일원으로 한시사(漢時史)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하 임춘 조부님(西河公 林椿)의 시를 우리 후대가 읽어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 중요한 일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8백년전의 조상님들의 삶과 흔적 그리고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는 것이 후손의 도리이며 생활의 전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하 조부님의 시 곳곳에서, 광포한 시대와의 조우에서 빚어진 처연함을 몸으로 극복하려했던 한 지식인의 초상을 우리 후손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않되기 때문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서하조부님(西河)은 고려 무신정권기의 문인으로 부안임씨(부안林氏)의 7대로 자는 기지(耆之), 호는 서하(西河)입니다. 1152년 고려의종 때 태어나서 30대 후반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건국공신의 후예로 구 귀족사회에서는 문학적 명성이 있었던 가문이었고 20세 전후에 무신정변을 만나 가문 전체가 화를 입었는데, 겨우 피신해 목숨은 건졌으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공음전을 탈취당하고 약 7년여의 유락(流落)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자천(自薦)을 시도하고 개경으로 올라와 과거준비를 했으나, 무인들의 집권으로 경원 당하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의와 빈곤 속에서 방황하다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인로(李仁老)를 비롯한 죽림고회(竹林高會)의 벗들과 시와 술을 즐기며 현실에 대한 불만과 탄식, 커다란 포부 등을 문학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강한 산문성을 띤 西河조부님의 시는 자신의 현실적 관심을 짚게 드러내고 있으며, 가전체 소설인 〈국순전(麴醇傳)〉 〈공방전(孔方傳)〉은 당대의 비리를 비유적으로 비판한 가전체 작품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 많은 작품 중에서 ‘모춘문앵(暮春聞鶯)’시 한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춘문앵(暮春聞鶯)

- 늦은 봄 피꼬리 소리를 듣고서 -

田家甚熟麥將稠
(전가심숙맥장조)

농가에 오디익고 보리 익어갈제

綠樹初聞黃栗留
(녹수초문황율류)

초록숲 피꼬리 소리 처음 듣누나

似識洛陽花下客
(사식낙양화하객)

꽃그늘의 서울손님 알기라도 하는 듯

慙慙百轉未能休
(은근백전미능휴)

은근히 재잘재잘 잠시도 쉬지 않네.

무신란으로 인해 모든꿈이 짓밟혔다. 탄탄해 보이던 앞날은 급전직하 곤두박질 쳤다. 그로부터 삶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처절함이 그의 생을 짓눌렀다. 시인은 절대궁핍을 몸소 체험하면서 서울 언저리를 맴돌다 마침내는 처가가 있는 경주에 갔으나 의탁할데가 마땅치 않았던지 아사(餓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속에는 그런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기사 굶주림이 그를 억압했다라면 시작 작업인들 엄두나 내었을까? 봄이 다 가도록 피꼬리소리 못 듣다가 느닷없는 새소리에 마음이 환해진다. 서울서 듣던 그 피꼬리 소리다. 내 주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수다를 떠다.

“서울서 뵈 분 같아요. 저 모르시겠어요? 저예요, 저라니까요. 여기좀 봐용”

잠시도 쉬지 않고 조잘대는 피꼬리소리에 마치 내가 예전 서울 꽃그늘아래 벗들과 어울려 술잔을 앞에 놓고 노닐던 그 나무그늘에 다시 앉은 것 같다. 이렇게 또 한 해 봄이 흘러간다. (참고문헌: 서하시집, 민속원)

서하 문집을 한땀한땀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난세에 그래도 삶을 부지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임을 읊고 있고,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불우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면서 자아의 성취의지를 고취시킨듯 했습니다. 특히, 모춘문앵 시에서 알듯이 초록빛 나무와 노란 피꼬리의 색조가 유독 대조됨은 피꼬리도 자신을 알아보는데 사람들로 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절반의 언어로 표현되고 형상화되고 있어, 말 밖의 현실세계에 대한 무궁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듯 합니다.

시작품을 통해서 가문에 대한 높은 긍지를 드러내면서 그 영예를 계승하고자 하는 소망을 짚게 그려내고 있는 듯합니다. 벼슬길에 진출하고자 했으나 포부가 좌절됨은 못내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오랜 시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개와 자부가 대단하고 문학적인 역량도 뛰어났으나 시대를 잘못 만나 진출의 길이 막히고 꺾인 서하는 그래도 비극적 인식의 극명한 작품을 후세에 남김으로써 오늘날 까지도 그의 정신과 가치는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더 먼 미래에까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존경하며 기리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군자들이 말하는 귀하게 되고 장수한다는 것”



서하 임휘 춘 조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공의 친 구이자 당대의 문인 미수 이인로는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그의 문장을 외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동양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굴원과 송옥의 반열에 세우려한다. 또한 군자들이 말하는 귀하게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

서하공께서는 신라 충절공 임휘 팔급(당나라 한림학사로 신라 평성에 동도하신 우리나라 임씨의 시조) 14세손이시고 고려 건국공신 벽상삼한태사 문헌공 휘 계미(부안임씨의 시조)의 7세손이시다. 대대로 고관 벼슬을 하던 집안으로 백부 휘 종비께서는 한림학사, 백부 휘 민비께서는 한림동 평장사, 부친 휘 광비께서는 문하시랑 평장사로 3형제가 모두 옥당에 오르셨다. 고려 의종때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는 명문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 나셨다.

학문적 스승이신 백부 諱 종비께 학문을 배우셨고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육. 칠세 때 백가어(百家語)를 편독(遍讀)해서 정밀한 이치를 깨달으셨다. 청년기부터 문명을 날리며 문학적 명성으로 기반이 닦여 있었다. 가문의 힘을 빌려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신분이었지만, 학문을 떨쳐 입신하겠다는 기개가 높아 당당한 등용을 준비해 오셨다. 항우를 사로잡은 장량처럼 제왕의 스승이 되는 것을 대장부의 참다운 사업(長劍行중에서)이라 꿈꿔오며 진사과에 합격하여 과거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 무렵 고려 의종 때인 1170년 보현원에서는 왕이 신하들과 놀이를 즐기던 도중 한 젊은 문신이 무술 대련을 기권한 나이든 무신의 뺨을 때려 모욕을 준 사건이 벌어졌다.

얼마 전 문벌 귀족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자신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며 조롱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정중부는 보현원 사건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문신 귀족들을 모두 죽이고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을 세웠으며 모든 권력을 차지했다. 정중부,이의민, 최충헌등의 무신정권이 계속 이어졌다.

무신정변으로 인해 문신 대숙청이란 무신정권의 폭정에 온 집안이 화를 당하고 조상대대의 공음전과 살던 집조차 탈취 당한 채 홀로 몸만 겨우 탈출하여 강남땅으로 피신 하셨다.

현재 남아 있는 글 중 대부분이 이 당시에 쓰여진 것인데, 당대의 명 문장이 이인로, 오세재, 조남통, 황보항, 함순, 이담지등과 더불어 죽림고회竹林高會 강좌칠현을 이루시어 술을 벗하고 문학을 논하며 새로운 문풍을 일으키셨다. 주기사상主氣思想을 바탕으로 한 기질이나 개성을 중시하는 문장론을 주장 하였고, 서書·계략·서序·기記등 안분지기安分知機·가일可逸의 경지를 그려 내고 있다. 가전체 소설 국순전國醇傳과 공방전孔方傳을 저술하시어 우리나라의 고전문학사에 새로운 지표를 세우셨다.

그러나 입신으로 옥당에 올라 가문을 다시 세우겠다고 몇 차례 과거에 응시 하였으나 무신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는 무신정권에 경원 당하여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 뒤 경기도 장단長湍으로 내려가 고뇌와 곤궁 속에서 향년 32세에 돌아가셨다.

西河公께서 돌아가신 20여년 뒤에 이인로李仁老(파한집,보현집의 저자)가 공의 원고 유편 약간을 수습하여 6권으로 편집하고, 서문에 "애석하게도 하늘이 많은 날들을 허락하지 않아 저술한 것은 많지만 봉황의 터럭 하나를 보고도 죽히 아홉 종류의 날개 빛깔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서하집이 처음으로 간행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질로 전하는 것은 없다. 서하집이 중간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말 담인棼印스님이 혼란한 정세와 전란 속에서 서하집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청도 운문사 청동향아리(보물제208호)

에 복장품처럼 보관한 것을, 500여년이 지나 운문사 스님인 인담印湲이 꿈에 한 도사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다시 찾아 냈는데, 발견한 사람이 인담 이었다는 점이 기이하다 해서 후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시화집詩話集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다시 찾은 서하집은 조선 숙종 39년(1714)에 14대손인 임재무에 의해 중간되었다.

서하공의 묘소 또한 실전되어 수백년간 찾을 수 없었다.

18대손인 김포 월곡의 후손 하운공 임재호는 서하공의 묘소가 실전되어 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묘소를 꼭 찾겠다는 결심으로, 당시 검단에 신씨와 안씨의 집에 성씨를 바꾸어 들어가 4년 동안 병어리행세하며 머슴살이를 하였다. 두 집안이 서하공 묘소를 경계로 소유에 대한 다툼을 목격하고 김포종인들과 함께 소유를 주장하고 7년의 송사를 진행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화병으로 돌아 가셨다.

이후 19대손인 김포 월곡의 후손 해사 승익은 추사 김정희선생 문하에서 사사 받으셨고 갑오정쟁과 농민봉기등으로 혼란한 시절인 갑오년에 사마시에 등과 장원급제하여 정3품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에 제수되어 궁궐 내직에 근무 하셨다.

하운공 임재호의 노력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해사공께서 서하공의 가승문집, 세보, 지식등과 공의 특출한 문장으로 고종황제에게 직접 상주하셨고 고종25년 2월 어명판결을 받으셨다.

그리고 무자년 9월 검단 가련산 서하공의 잃어버렸던 묘택과 지식을 찾고난 뒤 10월 상달 15일에 산신제문과 서하공 제문을 지어 분향 총 하시고 제를 올리셨으니 현재 우리가 떳떳하게 시향을 올릴수있게 된 것으로 우리 가문에 큰 공과 업적을 남기신 것이다.

서하공의 국순전 과 공방전은 문교부 검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체 소설로 밝혀졌고 현재 영인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나누어 보관 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서하문학의 일부는 동문선 東文選, 삼한시귀감 三韓詩龜鑑 등의 문헌에 편편이 전해지고 있다. 근래에는 많은 번역가들이 서하집을 출간하여 일반인들의 교양서적으로, 학생들의 참고서로 읽고 배우고 있으며, 수많은 석학들이 서하문학과 철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여년간 서하공의 유필을 모아 6권의 책으로 만드신 미수 이인로님!

혼란한 정세와 전란 속에서 서하집을 안전하게 보존한 고려말 담인棼印스님!

500여년이 지나 서하집을 다시 찾아낸 운문사 인담印湲스님!

서하집을 중간한 14대손인 임재무님!

머슴살이까지 하며 서하공 묘소를 찾아낸 18대손 하운공 임재호님!

고종의 어명판결을 받아 서하공 유택을 다시 찾아온 해사 임승익님!

서하공은 유복한 가정에서 탁월한 문학적 재능과 포부를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내시다가 무신정변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전락顛落되어 꿈이 좌절되고 가문이 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연하게 그의 이상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우리나라 고전문학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850여년 동안 전설과 같은 반전을 반복하며 우리와 모든이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하공 찾기에 큰 공을 세우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서하공의 선비정신과 문학적 공적을 높이 기리고 후세에 선양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인로가 말한 “군자들이 말하는 귀하게 되고 장수한다!” 라고 생각 합니다.

편집인 임 중 상

공방전(孔方傳)

－ 돈의 일생 －

서하 조부님의 대표작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체소설

공방의 자는 관지(貫之:꿰다는 뜻)니, 그의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의 굴 속에 살았었다. 그리하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황제(黃帝) 때에 최초로 초빙되어 채용되었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 황제가 관상쟁이 신하로 하여금 그의 관상을 보게 하니, 그 신하가 한참 동안 그를 들여다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산과 들에 아무렇게나 자란 바탕이라 아무리 씻고 닦고 하여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폐하께서 조정의 신하들로 하여금 그를 풀무 속에 넣고 녹여서 변화시킨 뒤에 광채를 내게 한다면 본래의 자질이 드러날 것입니다. 임금은 신하를 임용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그 자질과 됃됨이를 따라 변화도 시키고 키우기도 하는 것이니, 바라건대 폐하는 그를 무딘 동(銅)이나 쇠붙이와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황제가 관상쟁이의 말에 따라 그를 풀무 속에 넣고 변화시킨 결과, 공방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뒷날 난리를 만나 다시 강물가의 용광로로 옮겨 갔는데 이 때부터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공방의 아버지 천(泉)은 주(周)나라의 대재(大宰)가 되어 나라의 세금을 맡아 다스렸었다.

공방은 그 됃됨이가 바깥쪽은 둥글고 안쪽은 모가 났는데, 시대에 따라 그의 직책이나 역할도 변화하였다. 저 한(漢)나라 때에는 홍로경이 되었는데, 당시에 오왕(吳王) 비가 교만하고 아침을 잘하여 나라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 때라 공방이 그를 많이 도와 주었다.

호제(虎帝) 때에는 온 천하가 흉년이 들어 모든 창고가 비자, 임금이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富民侯)로 삼고, 염철승(鹽鐵丞) 근(僅)과 함께 조정에 머무르게 하였다. 근(僅)은 늘 공방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가형(家兄)'이라고 불렀다.

공방은 성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어서 나라의 재산을 총괄하게 되매 '子母輕重法'이라는 저울에 다는 법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옛날과 같이 용광로에 넣어서 일정한 틀에 녹여 부을 필요가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저울 눈금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하고 물건 값을 마음대로 좌우하게 하여 결국에는 곡식을 천히 여기고 자신을 중히 여기게 하였다. 동시에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을 버리고 말단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여 농사의 중요성을 방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간관(諫官) 등이 그를 논박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은 그 논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방은 또 권세있는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어 그들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권력을 빙자하여 벼슬을 사고 팔게 하니 모든 권력이 그의 손바닥에서 놀아났다. 마침내 공경대부 같은 높은 벼슬아치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아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문권이 산처럼 쌓였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건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인간됨이 어떤가를 따지지 않았음은 물론 시정(市井)의 잡배들이라도 재물만 많으면 다 사귀었다. 그리고 때로는 시골의 건달패들을 따라다니면서 활 쏘고 장기 두고 바둑 두는 일도 협조하였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이 중하다."고 하였다.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공우(貢禹:간의대부)가 상소하였다.

"공방이 그동안 오래도록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나 농사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물품을 교환하는 이익만을 추구하니, 나라와 백성에 해가 되어 공사(公私)가 모두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뇌물이 횡행하여 청탁이 공공연히 행해집니다. 곧 천한 자가 짐을 진 채 수레에 오르니 도둑이 노릴 것은 뻔한 일이다."라는 말은 『주역』에 분명히 씌어 있는 교훈입니다. 바라건대 그의 관직을 빼앗아 그의 탐욕스러움을 징계하소서."

당시에 곡식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벼슬길에 나와서 국정의 군비를 충당하는 정책을 세우려던 자가 공방의 일을 질투하여 공우의 상소에 찬성하니 임금이

드디어 그 상소를 윤허하였다. 벼슬길에서 쫓겨나게 된 공방은 그의 문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동안 우리 임금님을 만나 홀로 천하를 경영함에 있어서 국가의 경비를 충족하게 하고 백성의 재물을 풍부하게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지금 하찮은 죄로 축출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등용이 되든 축출을 당하든 간에 나에게는 하등의 손익이 없다. 다행히도 나의 목숨은 실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주머니의 아가리를 틀어막고 가만히 들어앉은 채 먼 강가의 조그마한 마을로 돌아가겠다. 그리하여 낚시나 놓고 개울가에서 놀다가 물고기가 잡히거든 술이나 사서 마시겠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의 상인들과 함께 배를 띄우고 놀면서 나의 평생을 마치는 것으로 만족하련다. 비록 천종록(千種祿:많은 재물)과 오정식(五鼎食:다섯 솥의 음식)을 준다고 한들 이 즐거움에 비하겠는가? 어쨌든 내가 시행하던 정책은 오래지 않아 다시 계속될 것이다.

화교(和嶠)가 그의 기풍을 소문으로 듣고 많은 재물을 들여 그를 주머니 속에 간직하며 아꼈는데, 마침내 그를 사랑하는 벽(癖)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포(魯褒)가 그를 논박하고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저 완선자(阮宣子:진(晉)나라 원수(阮修))는 성품이 호방하여 속물(俗物)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공방의 무리와 지팡이를 끌며 같이 노닐다가 술독 근처에 가면 그만 술을 사서 마시곤 하였다. 또한 왕이보(王夷甫:진(晉)나라 왕견(王愷))는 공방을 상대하면 창피하다고 하여 공방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만 "이놈의 물건(阿堵物)."하고 불렀으니 청담론자(淸談論者)들이 공방을 천하게 여김이 이와 같았다.

당(唐)나라가 일어나자 유연(劉宴)이 탁지판관(度支判官)이 되었는데 나라의 재물이 넉넉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왕에게 다시 공방의 정책을 실시하면 국가 경제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간청하였다. 이 말은 『식화지(食貨志)』에 실려 전한다. 당시에 공방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의 문도(門徒)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찾아내어 다시 등용하니 그 정책이 개원(開元:713—755년, 당 현종) 연간에 크게 성행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조서를 내려 공방의 벼슬을 조의대부 소부승으로 추증하였다.

남송(南宋) 신종(神宗:1068—1086) 때에 이르러 왕안석(王安石)이 국권을 잡자 여혜경(呂惠卿)을 끌어들여 함께 정사를 다스려 나갈 때에 청묘법(靑苗法)을 만드니 세상이 매우 시끄럽고 나라 경제가 곤궁하여졌다. 소식(蘇軾:소동파)이 그 폐단을 엄하게 논박하여 모두 배척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모함을 당하여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뒤로 조정의 선비들이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하다가 사마광(司馬光)이 정승으로 들어오자 청묘법을 폐하고 소식을 등용하기를 청하였다. 공방 무리의 세력이 차츰 쇠퇴해지고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한 것은 이 때부터였다.

공방의 아들 윤(輪)은 성품이 경박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후에 수형령(水衡令)이 되었다가 장물(贓物)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역사가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남의 신하가 되어 탄마음을 먹고 이익을 추구한다면 어찌 충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방은 때를 만나 등용되고 임금은 그를 사랑하여 손을 잡고 나라의 장래를 간곡히 부탁하였으니, 그는 더할 수 없이 큰 은총을 받은 것이다. 마땅히 국가에 이익을 주고 피해를 없애서 그 은혜에 보답했어야 하거늘 오왕 비를 도와 권력을 휘두르고 또 사당(私黨)을 세웠으니, 충신도 못 되었고 분수도 없이 교제한 자이다. 공방이 죽자 그 문도들이 다시 남송에 등용되었는데 그들은 위정자에게 아부하여 도리어 정당한 사람을 모함하였다. 비록 잘못에 대한 이치야 할 수 없다지만 만일 원제가 공우의 말을 듣고 한번에 모두 쓸어 없애 버렸다면 가히 후환이 없었을 터인데 겨우 세력을 억누르는데 그쳐 그로 말미암아 후세에 폐단을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앞일을 내다보지 못한 우(愚)를 범했으니 이 어찌 한탄스럽지 않은가?"